

조선업계, LNG 넘어 방산·MRO·생산 자동화로 수익 다변화

〈보수·정비〉

과거 수주 사이클 실적 전환 진입
고선가 선박 인도효과로 실적개선
LNG선 신조 발주 회복 기대도

해상 통제 경쟁·북극항로 패권다툼
글로벌 특수선 수요 확대 전망
AI 기반 생산 공정 자동화 확대

고선가 선박 인도 효과로 실적 회복에 성공한 국내 조선업이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과 생산 효율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LNG 중심 상선에서 방산·합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 자동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고가 수주 본격 반영, 빅4 실적 동반 개선… LNG선 중심 전략 유지

2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발주 확대 기(2021~2022년)에 확보한 고선가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국내 조선 4사가 지난해 일제히 실적 개선 흐름에 올라섰다. 수주 후 2~3년 시차를 두고 매출이 반영되는 산업 특성상 과거 수주 사이클이 실적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진입한 데다, 생산 정상화에 따른 고정비 흡수 효과가 겹친 결과다.

조선업에서 고선가 선박은 LNG 운반선과 해양플랜트 등 고사양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선종을 뜻한다. 글로벌 시장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삼성중공업

조사업체마켓그로스리포트에 따르면 LNG 탱커 건조비는 용량·기술 통합 수준에 따라 평균 1억8000만~2억5000만 달러로, 극저온 저장 설비 등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이 같은 고부가 선종 인도 확대에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은 매출 17조5806억원(전년 대비 +21.4%), 영업이익 2조375억원(+188.9%)을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매출 12조7835억원(+18%), 영업이익 1조1676억원(+366%)을 올렸다.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 8622억원(+72%)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HJ중공업은 영업이익 670억원(+824.8%)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상황 측면에서도 LNG 중심의 상선 전

락은 당분간 유효하다는 평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는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 규모가 지난 2023년 1351억 달러에서 오는 2033년 2448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연평균 성장률 6.2%). 미국·카타르·캐나다의 LNG 수출 프로젝트 가동과 운임 반등이 맞물리며 LNG선 신조 발주 회복도 기대된다. 노후 LNG선 폐선 증가 역시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방산·MRO 확대, 생산 자동화 병행… 수익구조 다변화 가속

국내 조선사들은 방산과 합정 MRO를 중장기 성장축으로 삼는 동시에 생산 자동화 투자도 병행하며 수익원 다변화와 생산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해상 통제

경쟁과 영유권 분쟁, 북극항로를 둘러싼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특수선(합정)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4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이 2.72조달러(약 3800조원)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고, 해상 충돌 횟수도 2010년대 초 연 20건 수준에서 2023~2024년 80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미·중 해양 패권 경쟁 심화 역시 특수선 시장 확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기업들은 수주 확대와 생산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HD현대는 특수선 부문에서 필리핀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페루 현지 합정 건조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에는 미 해군 합정정비협약(MSRA)을 취득해

전투함 MRO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FOS(Future of Shipyard)'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봇·비전·AI 기술을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도 확대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지난 2024년 7월 MSRA를 취득해 전투함 MRO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수선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특수선 매출을 최근 1조원 수준에서 오는 2030년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거점 확보에도 나서 지난 2024년 12월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완료했다. 해당 조선소는 연간 1~1.5척 건조 능력을 갖췄다.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AI 기반 스마트야드 구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전 영역 데이터를 통합하는 생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며 디지털 기반 생산 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선박 모니터링과 AI 고장 진단 등 스마트십 솔루션 개발을 병행하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 실증과 연구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HJ중공업도 MSRA 체결 대상자로 선정돼 미 해군 합정 정비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USV)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며 방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테슬라 '오토파일럿' 위험성 논란… 정의선 '안전 리더십' 재조명

〈현대차그룹 회장〉

테슬라 사망사고에 3500억 배상 판결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도입 연기
지속 투자로 기술 경쟁력 확보 집중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판결을 둘러싸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강조한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와 웨이모 등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반면 테슬라는 2014년 오토파일럿을 공개하고 자사 모델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기술력을 과시해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지난 주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 대해 약 2억 4300만 달러(한화 약 350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판결을 유지했다. 테슬라가 제기한 판결 무효화와 새 재판 요청은 기각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주행 중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SUV 차량에 부딪치며 발생했다. SUV가 인근에서 있던 커플을 덮쳤고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원고인 유족들은 당시 차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 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줄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테슬라가 오히려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실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논란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차량 마케팅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테슬라의 차량 판매와 제조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다.

반면 정의선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미루며 안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레벨 2+ 경쟁 속에서 레벨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네시스 G90과 기아 EV9에 레벨 3급 'HDP(고속도로 자율주행)'를 탑재하려던 계획은 실제 도로 변수와 안전성 검증 부담 등으로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카메라 중심 기술로 전환하며 자체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용인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열린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행 AI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보 택시 부문에서는 구글 웨이모와 합작사 모셔널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자율주행 AI 적용 차량을 공개하고 2027년 레벨 2+ 수준 차량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아 창립 80주년' 행사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늦은 면이 있고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앞서고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단순 기술 추격을 넘어 '안전 리더십' 경쟁으로 구조를 전환하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SDS, 올해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제시

AI 악용·오용 인한 보안 위협
랜섬웨어, 클라우드 보안 등

삼성SDS가 지난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분석해 2026년 기업에 영향을 미칠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위협은 ▲인공지능(AI) 악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AI 기반 보안 위협 ▲랜섬웨어 ▲클라우드 보안 위

협 ▲피싱 및 계정 탈취 ▲데이터 보안 위협 등이다.

삼성SDS는 국내 IT·보안 담당 실무자와 관리자, 경영진 667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AI 기반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권한 남용, 데이터 유출, 무단 작업 등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에 최소 권한을 부여하고, 민감한 명령 수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용자승인 절차를 포함한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 암호화, 탈취 데이터 공개 협박, DDoS 공격, 이해관계자 압박 등 이른바 '4중 갈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업 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복구와 함께 사전 차단, 이상 행위 탐지, 사고

발생 후 격리·분석·복구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는 설정 오류와 권한 관리 미흡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과도한 스토리지 공유, 인증 설정 오류, 기본 설정 방치 등에 대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한 설정을 자동으로 탐지·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싱 및 계정 탈취는 내부망 침입과 데이터 유출, 추가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협으로 꼽혔다. 특히 챗봇

과 AI 에이전트 등 AI 계정에 부여된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다중 인증 체계 적용과 계정·역할·정책에 대한 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는 단일 인증 체계와 과도한 권한 부여, 미흡한 접근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직무와 역할 기반 접근 제어는 물론, 대량 다운로드나 비정상적 접속 등 사용자 행위 기반 통제를 병행해야 하며, 협력사와 공급망 전반을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